

협회동정

국내 환경정책 홍보 및 환경선진국으로서의 브랜드 가치 드높여

주한공관장 초청 2010년 환경정책설명회 개최

녹색한국의 비전을
주한공관장들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이만의 환경부장관

환경부가 주최하고 환경보전협회
(회장 손경식)가 주관한
「주한공관장 초청 2010년 환경부 정책설명회」
가 지난 2월 18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개최
되었다. 이날 행사는 주한 외국대사, 외교관
및 국제기구 환경분야 담당관 등 80여명이 참석

하였으며 우리나라 2010년 주요 환경정책을 홍보함으로써 환경선진국으로서의 국가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국가간 환경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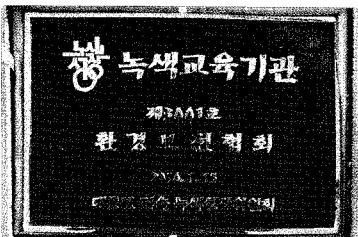
이만의 환경부장관은 개회사를 통하여 금년은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의 3주년이 되는 해로써 지난 2년간의 노력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산출하는 한해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녹색한국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한국정부는 4대강 살리기,
저탄소사회 구현 등의 '녹색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특히 환경부가 올해 환경정책을 선진화하여 국격을 향상시
키고 녹색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기후변화 위기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협회 손경식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경제성장에 새로운 기반을 다지기 위해 환경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할
것이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한국 기업들은 녹색투자를 더욱 늘려 나아갈 것임을 밝혔다. 환경부
김찬우 국제협력관이 '한국의 2010년 녹색성장 정책 방향'에 대하여 이민호 기후대기정책과장이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방향'에 대하여 각각 발표를 하였다. 또한 우리협회 전시사업과에서는 '환경산업기술 교류 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ENVEX)에 대한 소개를 하였다. 최근 우리나라가 G20 정상회의 개최국이 되고, UNEP
에서는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정책을 세계적 모범사례로 인정하여 금년도 B4E(환경을 위한 경제계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
하기로 결정하는 등 각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주한 공관장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행사는 국제사회와의 발
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국가간 환경협력 및 교류를 더욱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환영사에서 한국기업들이
녹색투자를 늘려 나갈 것임을 밝히고 계신
손경식 환경보전협회회장

녹색교육기관 지정, 녹색교육 앞장



환경보전협회(회장 손경식)는 지난 1월 15일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 김형국 서울대 명예교수)로부터 녹색교육기관으로 지정 받고 1월 26일 녹색교육기관 현판과 지정서를 수여 받았다.

환경보전협회는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현장 실무교육, 환경성적표지인증심사원 교육, 푸름이 이동환경교실, 한강 생태학습장 탐방프로그램 등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환경보전협회는 11개 시·도 지역 협회 전국 조직을 기반으로 1983년부터 환경기술인 법정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8개 법률에 의거 매년 5만명의 환경기술인 법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법정교육 수료자들은 대상으로 교육 과정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결과 교과 목평성 95.5%, 현장실무도움 93.7% 등 대부분 참석자들은 교육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조사되었다.

(*설문조사 2009. 12. 31일 기준)

또한, 환경보전협회는 환경교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환경교육 위임·위탁 기관으로써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녹색교육 기관으로 지정되어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환경교육 기관으로 평가되고 있다.

환경30년사 발간기념회 및 환경인 결의 다짐



환경부가 주최하고 환경보전협회(회장 손경식)가 주관한 「환경30년사 발간기념회 및 환경인 결의다짐대회」가 지난 2월 5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되었다. 환경부가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환경행정 역사를 집대성한 「환경30년사」를 발간·기념하고 환경인의 우의를 다지기 위한 자리로 환경원로, 국회위원, 언론인, 경제인 등 250여명이 참석하여 “나의 작은 녹색생활, 녹색 성장 초석된다” 등 구호를 외치며 녹색 성장 실천에 대한 결의 다짐의 시간을 가졌다.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행정은 1967년 당시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 환경위생과의 공해계에 단 4명의 인원으로 시작했다. 그 후 1980년 1월 15일 환경부의 전신인 환경청(廳)이 처음으로 발족했고, 10년이 지난 1990년 1월 3일에는 장관급 부처인 환경처(處)로 승격되었다. 그 후 1991년과 1994년 두 차례의 낙동강 수질오염사고를 거치면서 1994년 12월 23일 환경부(部)로 승격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환경 30년사」는 1,226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환경부 각 실·국은 물론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의 환경영업무 추진 역사가 모두 망라되어 있다.

이만의 환경부장관은 “환경30년사” 발간사에서 “이 역사서의 주인공이자 저자는 바로 국민 여러분”이라며, “지금 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 지속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생물학적 폐·하수처리 실무교육 실시

환경보전협회(회장 손경식) 서울본회에서는 지난 2월 24일~26일까지 환경 오염물질 배출업체 중 생물학적 공법으로 폐하수를 처리하는 수질분야 사업장의 환경기술인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전문화된 기술과 경제적인 운영 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도 제1기 환경실무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실무교육은 이호환경컨설팅 이문호 대표이사가 「하폐수 처리장 운전시 활성슬러지 이상현상의 종류와 진단」, 「활성슬러지 진단방법」, 「활성슬러지 진단의 실험」등에 대하여 교육을 하였으며, 환경부 담당자가 개정된 환경법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였다. 국내·외 우수사례 및 현장 적용사례 연구 및 토의 등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환경기술인들에게 보탬이 되는 교육의 장이 되었다. 제2기 실무교육은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있을 예정이다.

“열려라! 환경체험 교구상자” 전시회 개최



환경부가 후원하고 환경보전협회(회장 손경식), 공주대학교, 한국환경교육연구소가 공동주최한 “열려라! 환경체험 교구상자” 전시회가 지난 2월 5일부터 7일까지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녹색성장체험관(www.egg.go.kr)에서 개최되었다. 동 전시회는 기후변화 및

협회동정



녹색성장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제고하고 향후 환경교육용 교구상자 수요를 증대시키면서 다양한 활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환경보전협회는 국내 최초로 환경교육 교구를 학교나 시민단체 등에게 무료로 대여 (www.etbox.kr)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09년 한 해 동안 95개 학교 및 기관에서 1,594개 상자를 대여하여 약 3만 명이 교구를 활용한 환경교육을 받았다. 기타 자세한 내용 및 문의사항은 환경교육용이동교구상자 홈페이지 (www.etbox.kr) 또는 환경부 녹색협력과(www.me.go.kr, 02-2110-6692), 환경보전협회 환경교육과 (www.epa.or.kr, 02-3407-1534)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0 환경교육사업 담당직원 통합워크샵 실시



환경보전협회(회장 손경식)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사업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대전광역시 만인산 푸른학습원에서 통합워크샵을 실시하였다.

푸름아이동환경교실, 환경교육포털사이트, 환경교육이동교구상자, 환경교육 프로그램인증 등 환경교육 담당자들이 전국에서 모여 워크샵에 참가하였다. 2박3일간의 워크샵을 통해 직원들은 전문강사의 특강과 대전광역시 만인산 푸른학습원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는 자리가 되었으며 학교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푸른하늘 지킴이 우수활동학교 시상식 개최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연상)과 환경보전협회(회장 손경식)는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조기 환경교육을 통하여 대기환경 개선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하여「푸른하늘 지킴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푸른하늘지킴이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서울, 경기, 인천)내 초등학생(4~6학년) 및 중학생으로 구성되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1월 25일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는 2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09년(제5기) 푸른하늘 지킴이 우수활동학교 17개교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으며, 경기도 의왕시 갈뫼초등학교가 대상을 수상하였다. 2010년도 「제6기 푸른하늘 지킴이」는 대기환경에 대한 학습 후 직접 홍보활동을 진행하면서 교내 및 학교 인근에서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실천활동을 하게 된다. (<http://www.me.go.kr/bluesky21>)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시험분석 업무협약 체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김상일)과 환경보전협회(회장 손경식)는 지난 1월

29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환경신기술 인증·기술검증 시험분석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환경보전협회에서 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에 필요한 시험분석을 담당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를 바탕으로 환경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 기관의 협약체결로 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투명성,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서로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중국 상해 국제환경보호전 한국관 참가
환경보전협회(회장 손경식)는 환경부 및 중소기업청, 강남구정의 지원으로 중국 상해 국제환경보호전(5.5~5.7)에 한국관을 구성해 참가한다. 중국 상해 국제환경보호전은 상해시 정부의 대대적인 후원을 받고 있는 전시회이며, 동시에 금년 상해엑스포 기간(5.1~10.30)중 IFAT CHINA전시회와 동시에 개최되어 참관객, 전문바이어, 교역액 등의 전시홍보 효과가 어느 해 보다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번 한국관에는 수질, 대기, 친환경상품 등 17업체가 구성되어 참가하며, 한중환경기술세미나가 동시에 개최되어 양국의 환경정책과 참가업체들의 기술소개의 장도 함께 마련된다. 동 전시회를 통해 중국의 환경시장 현황을 파악하고 나아가 우리의 환경기술을 중국시장에 널리 접목시킬 수 있는 좋은 비즈니스의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협회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ENVEEX) 등을 소개할 예정이며, 한국 환경산업체의 적극적인 판로개척과 환경산업의 수출마케팅 전략 강화의 목적으로 한국측 참관단도 구성해 파견할 예정이다.

신규직원 채용



환경보전협회에서는 수변생태벨트조성 사업 및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기술 지원 업무를 보강하고 내실있는 사업 운영을 위해 직원 3명을 신규 채용하였다. 이로써 생태관리과(김연수), 환경 교육과(박지나), 기술지원처(최동철) 직원이 함께 일하게 되었다. 장규신 사무총장 이하 모든 임·직원들은 화합과 단결을 통해 협회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회원사 및 환경기술 인들을 위한 친절과 서비스 향상에 더욱 노력하고 있다.

대구·경북 환경보전협회

녹색성장 교육협력을 위한 공동협약 체결 및 법정교육 실무회의 개최



대구·경북 환경보전협회(회장 문영수)에서는 지난 1월 26일 경상북도 경산 교육청(천태오 교육장)과 녹색성장 교육 협력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녹색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공유하여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녹색성장 관련행사 개최 및 생활 실천 운동의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적극 노력하여 경산 지역 초등학생들에게 환경 의식 고취 및 생활 실천 운동에 많은 기여를 하리라 예상된다.

그리고 지난 2월 19일에는 대구J's 호텔 다이아몬드홀(2층)에서 대구광역시(8개 구, 군 포함), 경상북도(23개 시, 군 포함), 대구지방환경청 등 담당공무원 75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환경관련 법정교육 담당공무원 실무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날 행사에서 문영수 회장은 환경교육의 필요성과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자세와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지난 2월 26일에는 환경관련 법정교육 강사간 담회를 개최하였으며, 문영수 회장은 최근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대비하여 법정교육 강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업체를 위한 실무중심의 강의를 당부하였다. 또한, 각 권역별 출장교육 확대 실시 및 법정교육의 효율적인 추진방향 등에 대한 전반적인 토의가 이루어졌다.

대전·충남 환경보전협회

2010년 환경행정실무 특별교육 실시



대전·충남 환경보전협회(회장 김용문)는 지난 1월 28일 대전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관내 환경기술인 약 28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환경행정실무 특별교육을 실시하였다.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실무와 자율 점검제도, 수질 및 악취 행정실무, 2010년부터 적용되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대하여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이상천 계장, 대전광역시 환경정책과 송문섭 사무관, 충청남도 환경관리과 최재성 환경지도담당이 강의를 하였

으며 참석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으며 환경관리 실무에 도움을 주는 교육의 장이 되었다.

경기도 환경보전협회

환경특별교육 및 법정교육 간담회 실시



경기도환경보전협회(회장 우봉제)에서는 회원사 및 기업체에 대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환경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수원상공회의소(1월 26일)와 한국산업기술대학교(1월 27일)에서 환경관련『특별교육』을 실시하였다.

‘2010년도 경기도 환경정책 및 지도·점검방향’과 ‘기업의 환경규제 개선 추진현황 및 달라지는 환경제도’에 대한 해설 강의가 있었으며, 참석한 200여 명의 환경담당 임·직원에게 국가 환경정책과 추진방향을 바르게 이해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친환경 경영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보탬이 되는 시간이 되었다.

또한 경기도환경보전협회에서는 2010년도 환경관련 법정교육 실시에 앞서 법정교육의 원활한 진행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2월 18일 시·군·구 법정교육 담당자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법정교육 선발기관 담당자 간담회를 실시하였다.